

김홍석 'Blue Hours 展' 캔버스 위에 걸레질 , 과연 미술인가?

강이슬 기자

2014-04-11 08:36



노동집약적 회화를 선보여 온 김홍석 작가가 내달 11일까지 국제갤러리 2관에서 개인전 ‘Blue Hours’를 개최한다.

특유의 걸레질 회화와 노동집약적인 다양한 방식의 회화를 선보여온 김홍석은 이번 전시에서 일용직 노동자 및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의해 제작된 다양한 형태와 기법의 연작들을 선보인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사람 객관적(People Objective)’ 프로젝트를 ‘시간당 예술(Hourly Art)’이란 제목으로 새롭게 발표했다. ‘시간당 예술’은 노동집약적인 작품 제작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작품결과의 미학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김홍석 전시가 열리는 국제갤러리 2관에 들어서면, 갤러리를 상징하는 하얀 벽면이 아닌 롤러로 자국이 그대로 느껴지는 검은 벽면을 마주하게 된다. 김홍석은 국제갤러리에 상주해 전시가 열릴 때 마다 벽의 페인팅을 칠하는 전문가에게 검은 페인팅을 롤러로 칠해달라고 한 것. 기존의 꼼꼼한 칠이 아닌, 벽면의 상단과 하단을 남겨두고는 다소 투박하게 칠했다.

“벽면을 채운 검은 페인팅은 왜 미술이 되는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노동의 결과로 아름답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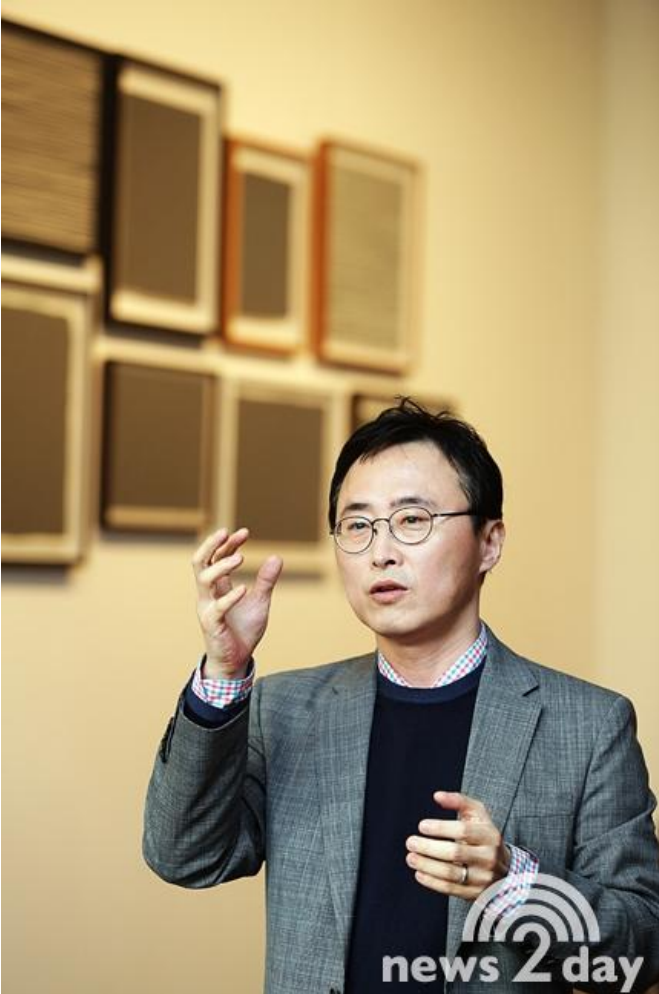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Untitled(big black wall)’과 걸레질 회화, 쓰레기장에서 구해온 캐비닛으로 작업한 ‘Untitled(112 hours)’ 등은 작가의 단순한 지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으로부터 귀결된 것들이다.

특히 걸레질 회화연작 ‘MOP-131014 걸레질-131014’은 작가가 색칠한 캔버스 표면을 일정시간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가 손 걸레질을 통해 닦아낸 행위의 결과이다. 걸레질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순간 작가의 요청에 의해 걸레질은 멈추게 된다.

이때 작가와 일용직 노동자 사이에 처음으로 미술을 주제로 한 ‘관계’가 발생하는데, 그들이 작가에게 보여준 반응은 단순 노동의 결과가 어떤 근거로 인해 미술작품으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육체적 행위에 의해 완성된 그림이 어떤 이유로 작가의 지적 소유물이 되는가에 대한 불편한 의문들이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은 작가의 미적 표현을 대리한 노동자들에게 이 노동으로 인해 그 동안 자신들이 품어 온 인식의 질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행위에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윤리적 불편함과 연관된다.



“이러한 나의 의도는 미술인가? 그 결과물은 미술인가? 미술 전문가들에 의해 발명된 미술의 관점에서 이것은 미술이지만, 일반적 관점에서 나와 일용직 노동자와의 관계는 ‘사회학’에 가깝다”며 “그런데 나는 이것이 미술이 되기 충분한 이유를 알고 있다. 이것이 미술이어야만 대접을 받는 그 이유도 파악하고 있다. 미술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말 부질없는 짓거리가 되기 때문에 미술이어야 한다. 나는 이것이 ‘지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 사실 이것은 분명 미술이 아닌데 미술로 소비될 것이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바로 ‘미술’이다.”

이처럼 김홍석은 현대미술의 관습적인 구조, 즉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작품의 생산구조

및 이를 유통하는 소비구조, 나아가 그 결과물을 작품으로 향유하는 관람자의 인식 등에 대해 예술적으로 꼬집고 있다.

URL:

http://www.news2day.co.kr/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47751&code=20111206181222_1191&s_code=20140206104316_7525&ds_code=